

그들의 국제자유도시 드림타워, 그늘 밑에 서있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의 상징, 드림타워가 올해 완공됩니다.

국제자유도시라는 이름만큼 거대하고 번쩍거립니다. 하지만 극복 불가능한 모순들이 거대한 건물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제주의 발전을 상징한다는 드림타워를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제주도민들이 있습니다. 드림타워가 몰고 올 재앙적인 상황들은 '그들의' 드림이 실현될수록 거지게 될 것입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올해 드림타워가 불러올 문제들에 주목할 것입니다. 드림타워는 여의도 63빌딩의 1.8배의 크기로 호텔 750실, 레지던스 850실, 대규모 레스토랑 및 판매시설, 초대형 카지노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드림타워로 인해 1일 5천 톤의 상수를 소비하고, 5천 톤의 하수가 발생합니다. 막대한 양의 쓰레기와 대규모 교통량을 유발하고, 카지노가 들어오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거대한 유리 반사판이 주변에 광반사와 열반사를 불러일으키고, 건물사이에 부는 바람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제주도민들과 함께 기록해 나갈 것입니다. 드림타워의 문제를 살피면서 외화내비의 국제자유도시의 허상을 밝히고 제주의 가치를 지키고 제주도민을 위한 미래를 만드는 성찰의 기념비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드림타워의 하수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드림타워 측은 드림타워의 1일 하수발생량은 4,968톤으로 이중 45%인 2,248톤은 도두동에 있는 제주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나머지 2,740톤은 자체에서 정화하여 중수도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체 정화한 중수도 중 사용한 나머지 1,700톤을 흘천에 방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제주하수처리장은 거의 항상 처리용량의 99%의 하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수유입량이 처리용량의 80%만 넘어도 하수처리장은 포화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80%면 하수가 많이 발생하는 아침 저녁시간이나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여름철 등에는 처리용량을 뛰어넘는 하수가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정은 하수처리도 못하는 상황에서 드림타워의 오픈을 돕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드림타워의 하수를 모아두었다가 심야에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이해 불가능한 계획에 동조하여 승인하였습니다. 심지어 환경부 2급수 기준은 3ppm 이하지만, 3~5ppm을 2급수라고 하면서 이를 흘천에 방류하겠다고 하는 계획도 승인했습니다. 드림타워 자체가 제주도민에게는 재난이지만, 드림타워에 대해 해야 할 바를 못하고 어떻게든 떠받치는 제주도정이 더욱 큰 재앙입니다.



긴급진단

코로나19와 제주경제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들어 제주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태가 심각하기는 하지만 제주에는 크고 작은 이유로 관광객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보면 사스와 메르스 등 국제적인 전염병 발생의 이유로 중국 당국의 여행법 개정과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 관광객 통제, 미중간의 무역전쟁의 국면에서 중국정부의 달러 유출 방지 차원의 관광객 통제 정책 시행 등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한 관광객 급감현상도 발생하였습니다.

제주는 관광산업이 유일한 산업이고, 관광산업이 흔들리면 제주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제주경제를 총량적으로 보면 관광수입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총량적인 관점에서 그렇고, 제주도민의 소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감골 등 1차산업의 소득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관광산업의 수입이 제주도 경제에 들지 않고 대자본의 주머니로 들어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관광산업이 어려움에 처하면 마치 제주도민의 심각한 위기로 포장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제주에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면서, 관광 산업 부분만을 지나치게 중시하면서 유일한 제주의 경제대안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사태에서도 보듯이 관광산업은 외풍에 매우 취약한 산업입니다. 제주도가 지나치게 관광산업 중심으로만 경제구조가 형성되면, 외풍에 취약하고 내실이 부족하여 이번 코로나19사태와 동반된 경제위기를 자주 겪게 될 것입니다.

관광산업은 1차산업과 제조업 등과의 균형적인 구조에 바탕을 두어야 하고, 관광산업을 비롯한 서비스산업 육성에 지나치게 편중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특별법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제주의 농업을 우선 친환경적 농업으로 전환하고 농업 생산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조업 육성에 경제기초를 튼튼히 하여야 합니다. 2021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수정될 때, 결코 무늬만 바뀌는 수정이 되지 않도록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모아야 합니다.

신화월드 700명 근무, 고객은 100명도 안된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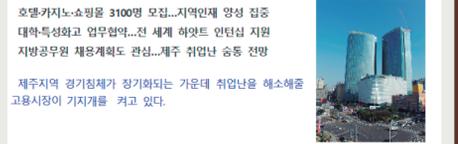
최병근 기자 | © 송인 2020.03.05 11:32 | 댓글 0



제주 고용시장 '기지가개' 드림타워 대규모 채용

김경원 기자

입력 2020-03-05 (목) 17:43:41 / 승인 2020-03-05 (목) 17:46:13 / 최종수정 2020-03-05 (목) 17:46:07



호텔카지노-쇼핑몰 3100명 모집...지역인재 양성 집중 대학특성화고 업무협약...전 세계 하얏트 인턴십 지원 지방공무원 채용계획도 관심...제주 취업난 승풍 전망

제주지역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취업난을 해소해줄 고용시장이 기지가개'를 하고 있다.

활동 이모저모

1월

- 1월 1일 새해맞이 제2공항반대 성산일출봉 선전전
- 1월 2일 거점별 제2공항반대 캠페인(8호광장)
- 1월 7일 환경개선부담금 지문회의(제주연구원)
- 1월 8일 KBS집중진단: 언론문제(홍영철 공동대표)
- 1월 9일 거점별 제2공항반대 캠페인(8호광장)
- 1월 12일 한라생태길라잡이 정기총회
- 1월 13일 정기 이사회
-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 연석회의(홍영철 공동대표)
- 1월 14일 생태문화해설가모임 올레 정기총회
[논평] 두개은 얼굴만 남은 JDC,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 1월 20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연석회의
- 1월 22일 [성명] 반경 400m안에 면세점 3개? 도민 삶의 질을 어디까지 추락시킬 것인가?
- 1월 23일 사파리월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열람
- 1월 23일 거점별 제2공항반대 캠페인(8호광장)
- 1월 28일 KBS-R 제주포커스: 신세계면세점
- 1월 29일 용천수 효율적 이용방안 마련 및 전수조사 사전협의회의 총회준비위원회 1차 회의
- 1월 30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총회(청주)
거점별 제2공항반대 캠페인(8호광장)

2월

- 2월 3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연석회의
- 2월 5일 한라생태길라잡이 임시회의
- 2월 6일 거점별 제2공항반대 캠페인(8호광장)
총회준비위원회 2차 회의
- 2월 10일 정기이사회
[성명] 도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수정·보완 필요
- 2월 12일 CBS 라디오: 신세계면세점
- 2월 17일 생태내자 양성교육 심화과정 사전회의
- 2월 18일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계약 및 사전적연
- 2월 20일 거점별 제2공항반대 캠페인(8호광장)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갈등영향분석 용역 중간보고회
- 2월 26일 드림타워 인근 및 흘천(중수도 방류구) 현장답사
- 2월 27일 제주도의회 송악산 자연문화유산의 가치인식 제고 토론회
(홍영철 공동대표)

[성명] 신제주 신세계면세점 추진계획 철회하라!(1.22)



교통이 혼잡한 제주시 노형동과 연동에 세 번째 면세점이 진출하려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인근지역은 교통지옥이 될 것이 뻔한데 과잉관광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이고, 관광수익은 대기업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형국입니다. 해당 사업계획은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통과하였지만, 아직 경관심의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성명 발표를 시작으로, 우리단체는 신세계면세점 계획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장답사] 드림타워와 흘천(2.26)



올해 상반기 개장을 앞두고 있는 드림타워. 벌써부터 도민사회에서는 대형 카지노 문제부터 오수처리와 교통난, 유리창 난반사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올해, 드림타워가 유발하는 문제를 '국제자유도시가 지역주민의 삶에 미치는 문제점들의 축소판'이라 보고, 이를 주축해 공론화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 첫 걸음으로 드림타워 주변을 답사하고, 중수를 흘려보낼 예정인 흘천을 답사했습니다. 올해 우리단체의 활동, 기대되지 않나요? 함께해 주세요+_+

[입법예고 의견제출] 도의회 공무국외출장, 이대론 안됩니다!

제11대 제주도의회 개원 이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



회에 상정된 27건의 안건 중(2020.2.10 기준)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도의회의 공무국외출장이 절차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되어 도민들의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자, 강성민 의원의 조례안에 추가 수정사항을 포함한 입법예고 의견서를 도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제출 시기를 "출국 30일 전"에서 "출국 60일 전"으로 하여 사전예약과 위약금 문제에 따른 불거피한 공무국외출장 승인이란 사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2. 의원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위원 2명을 외부 공모(도민위원)로 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며, 3.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속기록으로 작성토록하여 심사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제2공항반대 길거리 피켓팅(매주 목요일)



"공항보다 제주가 포화!" 이런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우리 활동가들을 길거리에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2공항강행 저지비상도민회의 활동가들은 1-2월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 거점 지역에서 제2공항의 각종 문제점을 알리는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제2공항) 하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니 마세요?" 라고 문의해 오는 분부터, 응원 의 의미로 음료를 가져다주는 분까지. 우리의 피켓팅이 제2공항의 문제를 일리는 씨앗이 되어, 제2공항이 백지화되는 2020년을 희망해 봅니다!

한라생태길라잡이 총회(1.12)



'한라생태학교'부터 '안프링물 만나러 가는 길'과 '한라산 관음사 탐방로' 식생 모니터링까지. 지난 한해 즐겁게 활동을 이어온 한라생태길라잡이 선생님들의 총회가 1월 12일 자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는 기존 활동에 더해 각종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길라잡이 쌤들을 찾아가 역량을 다지기로 결의를 하셨다는 후문! 그 첫 시간으로 2월에는 폭장 선생님의 뜻한 4·3 이야기를 통해 회원들의 실력을 공유하고 쌓아나가고 왔다고 합니다. 올해도 한라생태길라잡이의 활동, 기대됩니다!!

생태문화해설가모임 올레 총회(1.14)



산악 바이크로 훼손이 가속화 된 문석이오름이 2019년 휴식년제 오름으로 추가되며 더욱 바쁜 활동을 이어간 생태문화해설가모임 올레 쌤들. 올레 쌤들도 작년 한해를 돌아보고, 2020년을 그려보는 총회를 1월 14일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도너리오름을 포함한 일부 오름의 모니터링 방법과 방형구 위치 등의 개선사항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휴식년제 오름 모니터링에 더해 한라수목원생태탐방과 보건소 기행 등으로 환경교육도 이어나가고 있는 올레 쌤들, 올 한해도 올레다운 멋진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_^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동계 워크숍(1.30)



우리 단체는 전국 19개 참여자치단체와의 네트워크 조직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치')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치 단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과 같은 전국 이슈에 함께 대응하는 물론, 의정활동 분석 공동작업 등을 통해 참여와 자치, 인권실현 등을 통해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1월 30일엔 청주에서 참치 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활동을 교류하고, 2020년 사업 방향을 모색해보는 동계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훼손오름 모니터링: 새별오름(3.5)



올해 첫 훼손오름 모니터링을 다녀왔습니다. 새별오름엔 들불축제가 취소되었음에도 풀 장리가 한창이 있는데요. 알고 보니, 제주사에서 역세를 고르게 자라게 하기 위한 불농기(?)를 진행하려 했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반발이론이 일자, 제주사는 불농기를 당일 취소한다고 밝혔는데요. 심각한 훼손으로 휴식년제를 고안하고 있는 새별오름을 축제와 관광의 장소로만 인식하는 행정에 씁쓸함이 더해집니다.

송악산 난개발에 반대합니다

#제주도 #역사문화유산 #송악산 #뉴오션타운 #난개발 #환경파리